

광주 AI 스타트업 발굴 속도 낸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KT 업무 협약

유망기업 육성...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하 AI사업단)이 KT와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발굴 및 성장 촉진을 통한 지속 가능한 광주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AI사업단은 10일 "유망 AI 스타트업 발굴 육성 지원을 위해 KT와 '개방형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AI 창업캠프 입주기업·AI 창업 전문가 매칭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진

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임차식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 배순민 KT 융합기술원 AI2XL 연구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지속 가능한 광주 AI 생태계 구축을 통해 광주가 국가 인공지능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광주지역 AI 스타트업이 KT의

AI 기술 플랫폼 '지니랩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KT와 AI 스타트업간의 기술 협력, 공동 프로젝트, 전략 투자, POC (기술 검증) 연구협업 등을 통한 개방형 AI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유망 AI 스타트업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우수 AI 스타트업 발굴·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차식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KT와 AI 스타트업 간 AI 기술을 공유하고, 기술 공동 개발 등 상호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전략적 동반 성장 관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앞으로 인공지능 스타트업 발굴과 각종 지원을 통해 광주 AI 유망 스타트업들이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KT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AI사업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시와 함께 광주 첨단3지구(4만7천246㎡)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4천119억원을 투입해 AI 융합으로 지역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AI 데이터센터 등 각종 인프라·기업·인재·기술 등을 집약하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AI 집적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재개

매일 오후 2시-9시...상무지구 5·18교육관 주차장

광주시는 10일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11일부터 서구 상무지구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주차장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임시선별검사소는 주말·공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해 시민들이 쉽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 해외입국자, 신속항원검사(자가키트) 양성자, 밀접접촉자(지정문자), 입영장정 등 PCR 우선순위 대상자만 가능하다.

PCR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은 신분증, 의사소견서, 보건소 통보문자, 양성

이 확인된 자가진단키트(밀봉) 등 증빙 자료를 지참해 방문해야 한다.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 시민은 관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385개소에서 전문기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수 있으며, 원스톱 진료기관에서는 한 번에 진단검사, 진료,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장은 "여름 휴가철 등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고 시민 편의를 위해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재개키로 했다"면서 "방역수칙 준수와 고위험군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시 협업부서-자치구 합동 집중호우 대비 긴급 대책회의’가 10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려 문영훈 광주시행정부시장이 관계자들과 분야별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광주시제공>

인명 피해·침수 우려 지역 집중점검

市, 집중호우 대비 긴급 대책점검 회의

광주시가 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광주시와 자치구 공무원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8월 말까지 인명 피해 우려 지역, 침수 우려 지역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실에서 시 협업부서,

자치구 합동으로 집중호우 대비 긴급 대책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분야별 대책을 점검했다.

문영훈 행정부시장 주재로 열린 회의는 최근 발생한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 광주시와 자치구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분야별 대책들을 점검하고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광주시는 집중호우로 인한 기상

특보 예상 시 ▲기상상황 실시간 감시 ▲한 발 앞선 상황판단회의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 선제 가동 ▲재해우려지역 예찰 ▲둔치주차장·하천(도로)·지하차도 등에 대한 현장출입 통제 사전 안내 등 현장 중심 대응책을 논의했다.

앞서 시는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기간(3월10일-5월14일) 재해 우려 지역 전체에 대한 자체 점검과 중앙 합동점검

을 실시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25일(6월28일-7월22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점검반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안전 위험요소를 철저히 점검할 바 있다.

6월부터는 기상정보의 신속한 전파와 공유, 원활한 협업을 위해 광주지방기상청과 상호기관 방문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해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했다.

또 기상청으로부터 예보경향이 풍부한 방재기상지원을 과전 받아 기상정보 해석과 단기·중기 상세 예보 등 선제적인 재난상황 대응 지원을 받고 있다. /백선강기자

전남도, ‘남도 의병’ 유물 공개 구입

내달 16일까지 접수...2025년 개관 ‘역사박물관’ 전시

전남도는 10일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는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에 전시·연구자료로 활용할 유물을 공개 구입한다"고 밝혔다.

구입 대상은 1555년 을묘왜변부터 1919년 3·1운동 이전까지 의병 관련 유물이나 자료다. 의병의 문집이나 편지, 사전을 비롯해 무기류, 의복, 생활용품 등 모든 의병 관련 유물이다.

매도 신청은 오는 9월 16일까지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수 유물은 구입선별위원회의 평가위원회의 감정평가를 거쳐 구입한다.

전남도는 2019년부터 공개구입 및 기증·기탁을 통해 2천113점의 의병 관련 유물을 수집했다. 보존처리와 번역 및 연구를 거쳐 2025년 6월 개관 예정인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에 전시해 관람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은 위기 때마다 구국에 앞장섰던 남도 의병의 충혼을 기리고 전남도민의 영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된다. 총사업비 440억원을 들여 나주 공산면 일원 36만㎡ 부지에 전시실, 추모시설, 역사쇼, 체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심재명 문화자원과장은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병박물관이 돼 의병 정신의 산실이 되도록 관련 유물 수집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병 유물의 기증과 기탁은 상시 받고 있으며 기증·기탁자 예우를 위해 박물관 내 현관 설치, 입장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한다. 자료의 가치와 중요도에 따라 특별전시실을 마련하거나 자료집도 발간할 예정이다. 유물 수집에 관한 문의 사항은 전남도 문화자원과(061-286-5344)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정기자

美 현지 취업 청년 인턴십 모집

道, 만 34세 이하 대학 재학·졸업생

전남도가 청년을 대상으로 미국 현지 취업 인턴십 참가자 모집에 들어갔다.

전남도는 9월 12일까지 '2022년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참가자 24명을 모집

할 계획이다. 전남에 주소를 둔 만 34세 이하 전남·광주·수도권 소재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연수생에게는 언어·직무·문화 등 해외 생활에 필요한 소양교육을 사전에 실시하고 비자 발급과 취업에 필요한 회화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기관

을 통한 1대1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자신의 전공과 희망 직종에 맞는 해외 기업 매칭, 출국 항공료, 해외 체류 보험료 등을 원스톱 지원하는 한편, 국내 복귀 후에는 대학 일자리센터 등과 연계해 취업·창업까지 알선하게 된다.

전남도는 9월 중 연수생 선발을 확정해 10월부터 언어·직무교육, 기업매칭, 비자발급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내년 초 출국시킬 계획이다.

‘전남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은 김영록 지사가 미국 순방 중 얻은 아이디어를 계기로 2019년부터 시작했다. 1년 단위 유급 인턴십으로 미국 지역 국내기업 해외법인과 로컬기업에 현재까지 60여명을 취업시켰다.

자세한 문의사항과 참가 신청은 전남도 국제협력관실(061-286-2432)과 사업운영기관인 목포대학교 인재개발원(061-450-2917)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정기자

道, 동계작물 경관보전직불금 전국 2위

64억 지급...1ha당 경관작물 170만원·준경관작물 100만원

전남도가 경관작물 재배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64억원 규모의 '2022년 동계작물 경관보전직불금'을 5천24호 농가에 지급한다.

경관보전직불금은 지역 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마을경관 보전 활동을 통해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 축제와 농촌관광, 도농 교류 등과 연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

급 면적 5천514ha를 배정받았다. 이는 전국 총 배정 면적의 37%로 전국 2위 규모다. 2021년에는 6천28ha, 75억원으로 전국의 46%를 차지했다.

지원 대상은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법인이다. 농가 당 지급 한도 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다.

1ha 당 지급 단가는 유채·자운영·코스모스 등 경관작물 170만원, 밀·이탈리안 라이그라스(Italian ryegrass)·호밀 등 준경관작물 100만원이다. /김재정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 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메인상권 빌딩급매

- 중심상업지역 역세권 코너 유동인구 엄청
- 대지 810㎡ 9층건물
- 급매68억(보3억1,000월3,600)부가세별도

*** 주차빵방, 월세빵방, 월세는 지정일자에 통장바로 입금됩니다
돈 벌어주는 귀한 빌딩입니다.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임금내역, 각종 채권상당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레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 지사오피스 상담 ▶

절차적 편의 법적차 준수 시간적 효율

호남지사 062-417-4731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드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대
- A/S

T.375-5880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문의 062)222-1095, 1096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N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